

오전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인도자
※ 예배기원 인도자
※ 경배찬송 36(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같이
※ 교독문34(시편81)..... 다 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255장(너희 죄 흉악하나) 다 같이
예배기도 1부 선우명환집사 2부 박홍만장로
응답송 찬양대
이달의찬양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다 같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의기도 다 같이
* 청소년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 우리의 본질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열왕기하2:19-22..... 김한순권사
찬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최세열목사
기도 설교자
◆응답하는 예배◆	
찬송 286장(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다 같이
봉헌 (새신자들봉팀) 다 같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은이
※ 찬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 축도 담임목사
※ 축복송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새벽기도회(월-금)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기도 / 김경희집사	본문 / 신명기 6:4	기도 / 한마음기도	본문 / 출애굽기20:1-3	빌립보서강해		
말씀 / 최세열목사	말씀 / 최세열목사	금요기도회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심계명강해2	당분간 쉬겠습니다.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3과 예수님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축도 / 최세열목사	주기도문 / 다같이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혜경 김영란	다음주 기도	1부	노재의집사	
	헌금위원	8월	최경선 신혜영 김연학 안해숙	다음주 성경봉독	2부	강항구장로
		9월	양희임 한미경 이용훈 김근중		1부	말은이
	식당봉사	금주	베드로회	다음주 마리아회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이영선집사
헌신찬양	금주	새신자들봉팀		다음주	구제사역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 열왕기하 2:19-22

여리고성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므로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준비하여 물 근원에 던지며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쳤다”고 선언합니다. 여리고성의 물을 고친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1. 여리고의 문제는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본래 풍요로운 땅입니다. 출애굽당시 정탐꾼들은 이곳에서 놀라운 열매를 보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을 강력하게 막아섬으로 멸망을 당했고, 더하여 여리고성을 재건축할 자에 대하여 여호수아의 저주가 있었습니다(수6:26). 실제로 아합 왕 시절에 여리고성을 다시 세웠던 히엘은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만나들과 막내아들을 잃었습니다(왕상16:34). 엘리사 당시 여리고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여리고 사람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엘리사선지자를 보고 “대머리며 올라가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통해 외모에 치중하지만 인격에 관심하지 않는 여리고성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왕하2:23)

둘째, 물이 좋지 않아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는데(마7:19)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과실나무는 사람들의 마음을 거칠고 궁핍하게 했으며, 물로 인해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여리고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본질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이것은 결국 좋지 못한 물, 곧 물질중심, 허망한 열정, 부당한 노동조건 등 영적, 정신적, 문화적 물이 좋지 못한 결과입니다.

혹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열매가 없다면 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2. 여리고의 나쁜 물은 어떻게 치유되고 있습니까?

첫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를 그릇에 비유합니다(딤후2:20,21). 새 그릇은 성결하고 정결한 사람, 성화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새 그릇에 담겨야 할 것은 소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집니다.

물의 근원 곧 생명의 근원이요, 구원의 근원되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고,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생명운동을 펼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엘리사는 “내가 이 물을 고쳤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물의 근원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바다매오처럼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 우리 영혼이 바르게 고쳐지고 세워질 때 우리의 삶도, 건강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 사회가 지닌 나쁜 물들도 고쳐질 것입니다. 우리 영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령강림 열두번째 주일(8월 7일)
제32과 귀 있는 자는 들으라(야고보서2장 1-12절)
(함께 읽을 말씀 : 이사야 57장 14-19절, 누가복음 14장 1-11절)

1.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4:11)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받아, 서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를 알려주려고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병폐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예를 듭니다. 어떤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그를 눈여겨보고는 그를 상석으로 앉힌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가난한 이한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footstool, 발을 올려놓는 가구) 아래에 앉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낮은 자리에 앉은 이를 오히려 높이시며 특별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면(눅 6:20)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2. 차별하지 않는 사랑의 교회 - 야고보서는 오늘 말씀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란 구절로 시작합니다(약 2:1). 즉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귀한 모습까지 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여러 율법 조항들을 잘 지키다가도 누구 하나라도 차별하게 되면 그는 범법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듯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죄짓는 일임을 알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 말씀의 초점을 온통 '길'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 길은 상한 이들이 걷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사 57:18). 교회는 이렇듯 예수께서 보여 주신 그 길만을 따를 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신 길을 정성을 다해 따를 뿐입니다.

미국 교통부에서 '왜 길가에 버려진 구두는 대부분 한쪽만 있는 것일까?' 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길가에 버려진 신발이 두 짝이 다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보고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신발은 한쪽만 없어도 두 쪽 다 쓸모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율법 조항을 다 여기지 않는 다 하여도 그 하나를 여기면 다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 하나로 모든 율법을 다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잘 하는 일'이고 전체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3. 귀 기울이는 삶 - 야고보서는 형제나 이웃이라는 낱말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19회). 여기에 더해서 믿음(16회), 일과 행위(15회)라는 말도 형제에 버금갈 만큼 나타납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나 행위에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귀명창이 있어야 소리명창이 나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이다.'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듣는 귀를 사모할 일입니다. 그 말씀을 온 몸으로 살아갈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강림 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 후 안수집사모임이 당회실에서 있습니다(오후1시 당회실)
2. 청소년부 수련회가 8월 3일에서 5일까지 '기도의 집'에서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7구 190-19)
3. 해든술 선교활동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8시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4. 구역예배와 금요기도회가 따로 모이지 않지만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8월 행사계획

1. 평신도참여예배 - 8월16일 바나바회
2. 찬양대헌신예배 - 8월 30일
3. 해든술선교활동 - 8월8일
4. 작정밤기도회 - 8월31일-9월 4일

향기로온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남공순 김기수 신혜영 안진영 이문순 박경자 김혜경 이종봉 이춘호 정숙자 서영자 박세일 이현옥 최지현 이용훈 김영숙 이완수 김봉순 김선영 윤승호 최경선 최임춘 강항구 류종란 박치국 이영란 홍강의 김성희 박지영 양석임 선우명환 장영분
- 감사헌금 : 김동현 김지환 양희임 김귀례 김병진 박광섭 양석임 서영자 박기환 한옥자 조예성 이종춘 나인원 이문순 김순님 안진영 박경자 무명4 (일천번제) 김동현 (생일) 지국남 임요훈 (백추)천사라
- 건축헌금 : 강항구 류종란 김혜경 함경숙 양석임 박세일 박치국 이영란 홍강의 김성희 마리아회 베드로회 조은미 선우명환 장영분
- 비전씨앗 : 양석임 김하윤 배영인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이현옥	양석임	3	9,000	10		7	강은순	이영선	서영자	6	19,000	70	
2	정정희	신혜영	조종순	5	20,000	27		8	김순님	오복실	여순애	7	25,000	40	
3	이춘호	함경숙	박정일	4	15,000	100		9	김인순	이영란	박기환	4	11,000	200	
4	김기희		최경선	7	17,000	50		10	장영분	노순영	교 회	2	10,000	80	
5	이문순	원혜경	이문순	2	10,000	50		계				44	151,000	683	
6	류종란	김애자	류종란	4	15,000	56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중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 도 실

치 료

좀체 못지 않는 기침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란 모두 다 써 보았으나 전혀 듣지 않았다.

드디어 그는 의사에게 찾아갔고 의사는 즉시 그가 폐렴을 앓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었으나 그는 증세만 안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의사는 더 깊고 더 심각한 문제를 치료했고 기침은 곧 사라졌다.

우리를 치유해 주신 예수

영국 황실 아카데미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피터 구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일생 소원인 스트라디벨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을 연주해보기를 그도 소원했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258년 전에 스트라디벨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을 가지고 핀란드에 가서 연주할 수 있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흥분한 가운데 스트라디벨리우스의 바이올린을 안고서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바이올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실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런던의 악기를 손질하는 기사가 "내가 그 악기를 고쳐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사가 다시 악기를 잘 만져서 감쪽같이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친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서 큰 찬사를 받았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깨졌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면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상처투성이인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과거보다 더 좋고 더 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5-31 2015.8.2.

성령강림 열한번째 주일

저희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으나
주님의 손길로 빛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어주셨으니,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영광을 돌리나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시니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셨으니,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한여름의 눈 부신 햇살처럼 오소서.
갈릴리 다니시며 구원을 선포하신 주님,
그늘진 마음에도 오시고, 그늘진 세상에도 오소서

교회마다 준비한 여름행사를 기억하여 주소서.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전교인 수련회까지
꿀처럼 달콤한 말씀을 받아먹고
기쁨의 찬양과 고백이 넘치게 하소서.

이처럼 차고 넘치는 복음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당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담당:이광주목사, 강은순전도사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 최지현